

TRƯỜNG ĐẠI HỌC VĂN LANG
KHOA XÃ HỘI VÀ NHÂN VĂN

ĐỀ THI VÀ ĐÁP ÁN
THI KẾT THÚC HỌC PHẦN
Học kỳ 1, năm học 2024-2025

I. Thông tin chung

Tên học phần:	NGŨ PHÁP TIẾNG HÀN 4 (đề 1)			
Mã học phần:	241_71KORE40213	Số tín chỉ:	3	
Mã nhóm lớp học phần:	241_71KORE40213_01			
Hình thức thi: Trắc nghiệm kết hợp Tự luận	Thời gian làm bài:		60	phút
Thí sinh được tham khảo tài liệu:	☐ Có		☒ Không	

II. Các yêu cầu của đề thi nhằm đáp ứng CLO

(Phần này phải phối hợp với thông tin từ đề cương chi tiết của học phần)

Ký hiệu CLO	Nội dung CLO	Hình thức đánh giá	Trọng số CLO trong thành phần đánh giá (%)	Câu hỏi thi số	Điểm số tối đa	Lấy dữ liệu đo lường mức đạt PLO/PI
(1)	(2)	(3)	(4)	(5)	(6)	(7)
CLO2	Phân biệt được sự giống nhau và khác nhau các ngữ pháp tương đồng để áp dụng vào đúng văn cảnh	Trắc nghiệm	60%	Trắc nghiệm (từ câu 1 đến câu 30)	6.0	PI3.2
CLO3	Vận dụng được các ngữ pháp trung cấp tiếng Hàn vào đúng văn cảnh, đúng trình độ	Tự luận	40%	Tự luận(câu 1 và câu 3)	4.0	PI5.2

III. Nội dung câu hỏi thi

PHẦN TRẮC NGHIỆM (6 điểm) (30 câu mỗi câu 0,2 điểm)

1.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혼자 사는 것이 좋기는 한데 요리를 못 해서 식사를 해결하기가 힘들어.

나: 쉬운 것부터 해 봐. () 요리 실력이 늘 거야.

- A. 하다가 보면
- B. 듣다가 보면
- C. 입다가 보면
- D. 쉬다가 보면

ANSWER: A

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새로운 반 분위기는 어때요?

나: 아직 서로 낯설어서 그런지 좀 어색해요. 하지만 같이 ()

- A. 수업을 듣다가 보면
- B. 노래를 하다가 보면
- C. 먹다가 보면
- D. 받다가 보면

ANSWER: A

3.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아이를 낳아 ()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 A. 키우다 보면
- B. 키우다 보니
- C. 키웠다 보면
- D. 키웠다 보니

ANSWER: A

4.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음식이 거의 다 ().

- A. 매울 줄 알았어요
- B. 추울 줄 알았어요
- C. 비곤할 줄 알았어요
- D. 힘들 줄 알았어요

ANSWER: A

5.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날씨가 맑은데 우산은 왜 가지고 왔어?

나: 아침에 구름이 많이 끼서 ()

- A. 비가 올 줄 알았거든
- B. 어려울 줄 알았거든
- C. 쉬을 줄 알았거든
- D. 어릴 줄 알았거든

ANSWER: A

6.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새로운 반 분위기는 어때요?

나: 아직 서로 낯설어서 그런지 좀 어색해요.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다가 보면 곧 ().

- A. 팬찮아지겠죠
- B. 힘들어지겠죠
- C. 피곤해지겠죠
- D. 좋지 않겠죠

ANSWER: A

7.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마크 씨가 요즘 다른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지요?

나: 맞아요, 아무리 불러도 ()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 A. 못 들을 정도로
- B. 못 먹을 정도로
- C. 못 할 정도로
- D. 못 살 정도로

ANSWER: A

8.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저기 옷가게 진영대에 서 있는 마네킹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눈이 조금씩 움직여요.

나: 저건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가: 네? 사람이요? 저는 마네킹 ().

- A. 인 줄 알았어요
- B. 인 줄 몰랐어요
- C. 일 줄 알았어요
- D. 일 줄 몰랐어요

ANSWER: A

9.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급한데, 완성하려면 아직 덜었어요?

나: 거의 끝났어요. 이것만 붙이면 되니까 ()

- A. 이제 다 한 셈이에요
- B. 이제 끝난 모양이에요
- C. 다 하기 전에 좀 쉴 거예요
- D. 급하게 하려면 힘들 거예요

ANSWER: A

10.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주 () 좋아졌어요.

- A. 만나다 보니까
- B. 만날까 봐
- C. 만날 정도로
- D. 만나기는 하지만

ANSWER: A

11.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한국어 실력이 대단하네요.

나: 감사해요. 한국인처럼 말하려고 () 많이 늘었어요.

A. 노력하다 보니까

B. 노력했지만

C. 노력해 봤자

D. 노력은커녕

ANSWER: A

1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약속 시간이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출발해요?

나: ()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A. 길이 막히니까 봐서

B. 늦으니까 봐서

C. 잊어버리니까 봐서

D. 화를 내니까 봐서

ANSWER: A

13.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그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나: 아니요. ()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A. 화를 내니까 봐서

B. 길이 막히니까 봐서

C. 늦으니까 봐서

D. 잊어버리니까 봐서

ANSWER: A

14.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이번 일로 타격이 크지요? 돈은 얼마나 손해를 보셨어요?

나: ()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지만, 우리 회사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게 제일 큰 손해지요.

A. 돈이야

B. 돈이라도

C. 돈만

D. 돈이나

ANSWER: A

15.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한국의 은행은 평일에는 보통 5시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내가 어제 5시 5분에 은행에 갔을 때 문이 () 있었다)

A. 닫혀

B. 닫고

C. 달어

D. 달았

ANSWER: A

16.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내가 집에 갔을 때 내 동생은 벌써 집에 와 있었다. 동생은 점심을 () 있었다

A. 먹고

B. 먹어

C. 먹었

D. 먹던

ANSWER: A

17.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제니퍼는 요즘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다. 책상 위에 항상 서류들이 () 있다.

A. 쌓여

B. 쌓이고

C. 쌓아졌

D. 쌓았

ANSWER: A

18.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피서 가서 재미있게 잘 보냈어요?

나: 도착한 날부터 비가 왔다가 갠다가 해서 별로 재미없었어요.

변덕스러운 () 제대로 수영도 못했거든요.

A. 날씨 탓에

B. 기분 탓에

C. 길 탓에

D. 옷 탓에

ANSWER: A

19.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시험 성적이 지난 번보다 안 좋아서 합격을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나: 그러길래 미리 공부를 해 두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가: () 있었겠지만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요.

A. 열심히 공부 안 한 탓도

B. 열심히 공부한 탓도

C. 열심히 공부하던

D. 열심히 공부하더라

ANSWER: A

20.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영화 배우 김민호가 폐암으로 죽었다면서요?

나: 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 그런데 왜 폐암에 걸렸대요?

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지나치게 ()이래요.

- A. 담배를 피운 탓
- B. 담배를 끊은 탓
- C. 담배를 안 피운 탓에
- D. 담배를 못 피운 탓에

ANSWER: A

21.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오늘은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겠어요.

나: 새벽에 () 길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었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 A. 눈이 온 탓에
- B. 안개가 낀 탓에
- C. 바람이 분 탓에
- D. 길이 막힌 탓에

ANSWER: A

2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아주머니, 버스가 급정거하면 위험하니까 아이를 여기에 ().

나: 고맙습니다.

- A. 앉히세요
- B. 앉으세요
- C. 앉고 싶어요
- D. 앉아서요

ANSWER: A

23.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서 큰일이에요.

나: 무슨 일인데요?

가: 얼마 전에 사람을 () 범인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다섯 명을 ().

- A. 죽인; 죽였대요
- B. 죽은; 죽였대요
- C. 죽은; 죽었대요
- D. 죽인; 죽었대요

ANSWER: A

24.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수진 씨, 커피 드실래요?

나: 좋아요

가: 그럼 제가 물을 ()

- A. 끓일게요
- B. 끓을게요
- C. 끓였을 게요
- D. 끓어거든

ANSWER: A

25.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요코 씨, 제가 어제 산 청바지인데 어때요?

나: 잘 어울려요. 그런데 좀 길군요.

가: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좀 ().

A. 줄여야겠어요

B. 줄어야겠어요

C. 줄었어요

D. 줄어서요

ANSWER: A

26.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마리아 씨 나라에서도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가나요?

나: 네, 우리 나라에서는 신발을 () 들어가면 안 돼요.

A. 신은 채로

B. 신거든

C. 신는 김에

D. 신으면

ANSWER: A

27.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내가 비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나: 이야 안 하면 내가 혼날 것 같아서 ()

A.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

B. 이야기할 수 있었어.

C. 이야기할 수 없었어.

D. 이야기할 뻔했어

ANSWER: A

28.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동생이 요리사니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주겠네요.

나: 아니요, 집에서는 ()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A. 요리는커녕

B. 요리하기에는

C. 요리 탓에

D. 요리 뿐만 아니라

ANSWER: A

29.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0,2 점)

가: 마이클 씨, 저희 동네까지 어떤 일이에요?

나: 날씨도 () 산책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A. 좋고 해서

B. 좋은 탓에

C. 좋아야

ĐÁP ÁN PHẦN TỰ LUẬN VÀ THANG ĐIỂM

Phần câu hỏi	Nội dung đáp án	Thang điểm	Ghi chú
I. Trắc nghiệm		6.0	
Câu 1 – 30		0.2	
II. Tự luận		4.0	
Nội dung câu 1	01.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율이 감소하였다. 02.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물건을 비싸게 구매하였다.	1.0	
Nội dung câu 2	01.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는 주위 사람을 모두 잃게 될 거야. 02.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워서 불을 켜 놓은 채 잠을 잤어요.	1.0	
Nội dung câu 3	01.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02.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2.0	
Điểm tổng		10.0	

TP. Hồ Chí Minh, ngày 25 tháng 10 năm 2024

Người duyệt đề

Giảng viên ra đề



Nguyễn Thị Hương



Đinh Thị Huyền